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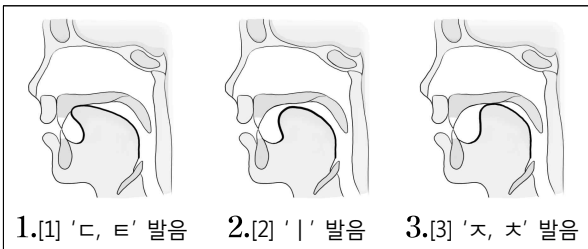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어의 대표적인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ㅂ, ㄷ, ㄱ’이 비음 ‘ㅃ, ㄸ’ 앞에서 비음 ‘ㅃ, ㄸ,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궁민]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해당한다.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유음화의 예로는 ‘칼날[칼랄]’이 있다. ㉠ 아래의 자음 체계표를 보면, 비음화와 유음화는 그 결과로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방식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음 위치 조음 방식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파열음	ㅂ, ㅍ	ㄷ, ㅌ		ㄱ, ㅋ
파찰음			ㅈ, ㅊ	
비음	ㅃ	ㄸ		ㅇ
유음		ㄹ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가령 ‘해돋이’가 [해도지]로 발음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동화 결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해돋이’가 [해도디]가 아닌 [해도지]로 소리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과 [2]에서 보듯이, ‘ㄷ’과 ‘ㅣ’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달라 ‘디’를 발음할 때는 혀가 잇몸에서 입천장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2]와 [3]을 보면, ‘ㅈ’과 ‘ㅣ’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를 발음할 때는 혀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는 동화 결과 인접한 두 음운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처럼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가 연속되면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되므로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1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 ② 음운의 동화로 조음 위치나 조음 방식이 바뀌면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 ③ 구개음화와 달리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한 두 음운은 모두 자음이다.
- ④ 구개음화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⑤ 구개음화는 동화의 결과로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1) 2018년 3월 고1 모의고사 국어 11~15번

12. ㉠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서 일어난 음운 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밤물[밤물]      b. 신라[실라]      c. 굳이[구지]

- ① a: 비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 ② a: 유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 ③ b: 비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④ b: 유음화의 예로,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 ⑤ c: 구개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13. <보기>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활동]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료]**

‘구문 도해’는 문장의 짜임을 그림으로 풀이한 것이다. 국어학자 최현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었다.

이 구문 도해는 ‘그가 새 옷을 드디어 입었다.’라는 문장을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내리그은 세로줄 왼편에는 주성분인 주어(그가), 목적어(옷을), 서술어(입었다)를, 오른편에는 부속 성분인 관형어(새), 부사어(드디어)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성분 사이에는 가로로 외줄을 그었는데, 특히 주어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할 때에는 가로로 쌍줄을 그었다. 또한 조사는 앞말과의 사이에 짧은 세로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활동]**

다음 문장의 구문 도해를 나타내시오.

나는 그 책도 샀다.

①                      ②                      ③                      ④                      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건의 정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없다** [업 : 따] [없어, 없으니, 없는]

㉠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 각이 진 원은 없다.

**있다** [인따] [있어, 있으니, 있는]

(1) ㉡ 【…에】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 그는 학교에 있다.

(2) ㉢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 ① ‘없다’는 장음 부호( : )를 표시하여 어간이 긴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
- ② ‘있다’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두 가지의 뜻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다의어라고 할 수 있군.
- ③ ‘있다(1)’은 주어 외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군.
- ④ ‘없다’와 ‘있다(2)’는 품사가 서로 같고, 의미상 반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없다’와 ‘있다’는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단어에 해당하는군.

15.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랏·말·쓰·미 ㉠ 中國·국·에 달·아文문·字·종·와·로서르스  
 못·디·아·니·홀·씩·이런·전·츠·로 ㉡ 어·린 百·씩·姓·성·이·니  
 르·고·져·홀·배이·셔·도·목·춤·내·제 ㉢ ㅍ·들·시·러·퍼·디·문  
 홀·노·미·하·니·라·내·이·를·爲·왕·호·야·어·옛·비·너·겨·새·로  
 ·스·물·여·들 字·종·를·딩·ᄒ·노·니·사·름·마·다·히·애·수·비  
 니·겨·날·로·부·메 ㉣ 便·便·安·한·키·호·고·져·홀 ㉤ 쓰·르·미·니·라  
 -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히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 조사 ‘에’는 앞말이 사건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 ② ㉡: 현대 국어의 ‘어리다’와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 ③ ㉢: 단어의 초성에 서로 다른 두 자음자를 나란히 적었다.
- ④ ㉣: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자가 있었다.
- ⑤ ㉤: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에 옮겨 표기하였다.

< 보 기 >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 중의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조사는 체언이 문장 속에서 다른 말과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격조사,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접속 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구분된다.

11. 밑줄 친 말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 ①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
  - ② 시험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
  - ③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보셨다.
  - ⑤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

12.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어근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두 어근 사이에 ‘ㄴ’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표준발음법의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ㅇ’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ㅇ]으로 발음한다.

㉡는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는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ㄴ, ㅁ’으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 혹은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들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빨랫돌[빨래돌 / 빨래뿔], 옷깃[옷깃],**  
**홀이불[흔니불], 뱃머리[뱃머리], 깃잎[깃잎]**

- ① ‘빨랫돌’은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 ② ‘옷깃’은 합성 명사이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 ③ ‘홀이불’은 ‘ㄴ’의 첨가가 나타나지만, ‘홀-’이 접사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없어요.
- ④ ‘뱃머리’는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ㅁ’으로 시작하는 음운 환경에서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 ⑤ ‘깃잎’은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ㅣ’로 시작되는데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2) 2018년 3월 고2 모의고사 국어 11~15번

‘ㄴ’이 첨가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1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피동문은 서술어가 형성되는 방법에 따라서, ‘과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뉜다. 과생적 피동문은 능동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 과생 접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다. 한편 통사적 피동문은 서술어로 쓰이는 타동사의 어간에 ‘-아/어지다’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그런데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 피동사로 과생되지 않는 동사도 있다. 또 ㉡ 능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의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문장도 있다.

	㉠	㉡
①	주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②	먹다	사람들이 열심히 풀을 뽑았다.
③	돕다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
④	만나다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
⑤	나누다	누나가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았다.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명사절은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 만들어진다. 명사형 어미는 안긴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이 서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사처럼 기능하도록 용언의 문법적인 기능을 바꾼다.

- ㄱ. 그것이 사실임이 틀림없다.
- ㄴ. 나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데, 위의 예문에서 ㄱ의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하고, ㄴ의 명사절은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도 다양한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어 만들어진 명사절이 문장에서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였다. 중세에 사용된 명사형 어미로는 ‘-음/움’과 ‘-기’, ‘-디’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음’과 ‘-움’은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움’이 쓰였다.

14. 윗글을 참고할 때, ㉠ ~ ㉣ 중 명사절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 보 기 >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 ㉢ 그는 1년 후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 ㉣ 어린 아이들은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

사용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15. 윗글을 참고할 때, ㉠ ~ ㉣ 중 명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날로 뿌메 뻔한키 ㅎ고져  
(나날이 씬에 편하게 하고자)
- ㉡ 구르미 축추기 둑뎡 ㅎ시니라  
(구름이 축축하게 뎡뎡 하시니라)
- ㉢ 부모를 현더케 홈이 효도의 ㅄ춤이 니라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 ㉣ 본향(本郷)에 도라 옴만 근디 몬ㅎ 니라  
(본향에 돌아옴만 같지 못하니라)
- ㉤ 내 겨지 비라 가져 가디 어려 를썩  
(내가 계집이라 가져가기 어려우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객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여쭙다’ 등 높임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선생님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 ②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밝으십니다.
- ④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 ⑤ 윤우야,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4)</sup>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는 문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격 조사의 차이도 그중 하나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를, 목적격 조사로 ‘을/를’을, 관형격 조사로 ‘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오늘날보다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먼저 주격 조사는 ‘이’만 사용하였는데, 이때 ‘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썼지만,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 ‘ㅣ’를 붙여 썼고, ‘ㅣ’로 끝나면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람’에는 ‘이’가 붙고, ‘부터’에는 ‘ㅣ’가 붙는다. 그러나 ‘비’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격 조사를 붙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목적격 조사는 ‘을/을/를/를’을 사용하였다.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을/을’, 모음으로 끝날 경우 ‘를/를’로 표기하였다. 또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을/를’로, 음성 모음이면 ‘을/를’로 표기하였다. 각각의 상황을 예로 들면, ‘ㅁ슴’에는 ‘을’이, ‘구름’에는 ‘을’이, ‘나’에는 ‘를’이, ‘너’에는 ‘를’이 붙는다.

끝으로 관형격 조사는 단어의 의미와 음운 환경에 따라 ‘의/의’와 ‘ㅅ’을 사용하였다. ‘의/의’는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 사용하였는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의’를, 음성 모음일 때는 ‘의’를 사용하였다. ‘ㅅ’은 앞에 오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거나,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닐 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놈’은 사람이고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고, ‘벌’은 동물이고 ‘ㅣ’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가 붙는다. 반면에 ‘부터’는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ㅅ’이 붙는다.

1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중에는 중세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 ② 중세 국어에는 음운 환경에 따라 주격 조사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③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더 다양하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예외 없이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목적격 조사로 ‘을’을 사용하였다.

4) 2018년 6월 고2 모의고사 국어 11~15번

1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조사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중세 국어] 거북 + ㉠ 터리 곧고

[현대 국어] 거북의 털과 같고

[중세 국어] 하늘 + ㉡ 光明이 문득 번흐거늘

[현대 국어] 하늘의 광명이 문득 흰하거늘

- |   |   |   |
|---|---|---|
|   | ㉠ | ㉡ |
| ① | 의 | ㅅ |
| ② | 이 | 의 |
| ③ | 의 | 이 |
| ④ | 이 | ㅅ |
| ⑤ | 의 | 의 |

13.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 < 보 기 > —

제10항 겹받침 ‘ㄸ’, ‘ㅌ’, ‘ㄹ’, ‘ㄷ’, ‘ㄹ’,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ㄸ, ㄹ, ㄷ, ㄹ, ㅃ]으로 발음한다.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ㄹ’, ‘ㄷ’,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ㄹ, ㄷ, ㅃ]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ㄹ’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넓지’는 제10항에 의거하여 [널찌]로 발음해야겠군.
- ② ‘ 옮겨’는 제11항에 의거하여 [움겨]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읽고’는 제11항에 의거하여 [일꼬]로 발음해야겠군.
- ④ ‘값이’는 제14항에 의거하여 [갑시]로 발음해야겠군.
- ⑤ ‘훑어’는 제14항에 의거하여 [홀터]로 발음해야겠군.

14. <보기>의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결문장 속에서 하나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을 ‘절’이라고 한다. ‘절’은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기거나 서로 이어지거나 한다.

(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

(나) 눈이 내린 마음은 고요했다.

㉢                      ㉣

(다) 나는 그가 왔음을 몰랐다.

㉤

- ① (가)에서 ㉠과 ㉡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 ② (나)에서 ㉢은 ㉣의 주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③ (다)의 ㉤을 생략하면 전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해진다.
- ④ (나)와 달리 (다)는 절이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겨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15. <보기>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바치다 ㉠**  
 ① 반드시 내거나 물어야 할 돈을 가져다준다. ¶ ㉠

**받치다<sup>1</sup> ㉡**  
 ①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 ¶ ㉡

**받치다<sup>2</sup> ㉢**  
 ① 어떤 물건의 밑이나 안에 다른 물건을 대다. ¶ ㉢  
 ②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다. ¶ ㉢

**받치다 ㉣**  
 ① 건더기와 액체가 섞인 것을 거르기 장치에 따라서 액체만을 따로 받아 내다. ¶ ㉣

- ① ㉠: 매년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바치고 있다.  
 ② ㉡: 그는 설움에 받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③ ㉢: 그녀는 쟁반에 음료수 잔을 받치고 걸어갔다.  
 ④ ㉣: 그가 우산을 받쳐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⑤ ㉣: 어머니께서 멸치젓을 체에 받쳐 놓았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

‘I like you.’를 번역할 때, 듣는 이가 친구라면 ‘난 널 좋아해.’라고 하겠지만, 할머니라면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며,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쓰기도 한다. 그 밖에 ‘게시다’, ‘주무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고, ㉠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	하십시오체	예) 합니다, 합니까? 등
	하오체	예) 하오, 하오? 등
	하계체	예) 하네, 하는가? 등
	해라체	예) 한다, 하냐? 등
비격식체	해요체	예) 해요, 해요? 등
	해체	예) 해, 해? 등

5) 2018년 9월 고1 모의고사 국어 11번~15번

격식체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자리나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은 ‘모시다’, ‘여쭙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11. 다음 문장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셨다.  
 ② 교수님께서서는 책이 많으시다.  
 ③ 어머니께서 음악회에 가셨다.  
 ④ 선생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⑤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복도에서 친구와 만난 상황)**  
 성호: 지수야, ㉠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어.  
 지수: 지금 바빠서 ㉡ 선생님께 자료 드리기가 어려운데, 네가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  
 성호: ㉢ 네가 선생님을 직접 뵈고,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수: 알았어.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간 상황)**  
 선생님: 지수야, 이번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지? 발표 자료 가져왔니?  
 지수: 여기 있어요. ㉣ 열심히 준비했어요.  
 선생님: 그래, 준비한 대로 발표 잘 하렴.

**(수업 중 발표 상황)**  
 지수: ㉤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① ㉠: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② ㉡: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③ ㉢: 특수 어휘 ‘뵈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④ ㉣: 듣는 사람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어요’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⑤ ㉤: 수업 중 발표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마치겠습니다’라고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군.

13. <보기 1>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보기 2>의 ㉠~㉣을 발음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표준 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2항**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보기 2> —————

주름이 ㉠ 많던 그 이마에는  
 ㉡ 젊어 폼찼던 꿈들 사라졌지만  
 너희가 없으면 나도 ㉢ 없단다.  
 ㉣ 꽃처럼 ㉤ 웃던 우리 어머니

- ① ㉠은 제12항 규정에 따라 [만턴]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은 제14항 규정에 따라 [절머]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은 제14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업판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은 제9항 규정에 따라 [꼴]으로 발음해야겠군.
- ⑤ ㉤은 제9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운뎃]으로 발음해야겠군.

1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깊 <u>던</u> 물이 <u>얕아</u> 졌다.	깊 <u>든</u> 물이 <u>얕아</u> 졌다.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 <u>든</u> 지 사과 <u>든</u> 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 <u>던</u> 지 사과 <u>던</u> 지 마음대로 먹어라.

- ① 영화나 보러 가던가.
- ② 그 사람 말 잘하는데!
- ③ 얼마나 깜짝 놀랐든지 몰라.
- ④ 어찌하던지 간에 나는 신경 안 써.
- ⑤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봐.

15. 다음은 단어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르다** ① 「동사」

① [...을]

- ㉠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ㄱ **ㄱ** 흠 있는 책을 돈으로 물렀다.
- ㉡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ㄱ **ㄱ** 한 수만 물러 주게.

② [...으로] 있던 자리에서 뒤로 옮기다.  
 ㄱ **ㄱ** 가운데 앉지 말고 뒤로 물러 벽 쪽으로 붙어 앉으렴.

**무르다** ② 「형용사」

- ㉢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  
 ㄱ **ㄱ** 무른 살
- ㉣ 마음이 여리거나 힘이 약하다.  
 ㄱ **ㄱ** 성질이 무르다.

- ① 무르다<sup>2</sup>와 무르다<sup>3</sup>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에 있군.
- ② 무르다<sup>2</sup>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다의어이군.
- ③ 무르다<sup>2</sup>의 ㉠-㉡의 유의어로 ‘빼다’가 가능하겠군.
- ④ 무르다<sup>2</sup>는 무르다<sup>3</sup>과 달리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군.
- ⑤ 무르다<sup>3</sup>의 ㉣의 용례로 ‘그는 마음이 물러서 모진 소리를 못한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6)</sup>

어근은 파생이나 합성 등 조어(造語) 과정에 참여하는 요소 중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하며, 어간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으로서 활용에서 어미에 선행하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말기다’에서 ‘말-’은 어근이며 ‘말기-’는 어간이다.

어근이나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를 접사라고 한다. 접사는 일반적으로 어근이나 어간과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접사는 기능에 따라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 파생 접사와 활용할 때 어간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 접사로 나누기도 한다. 어근의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는 굴절 접사가 없어 모두 파생 접사이고, 어근의 뒤에 위치하는 접미사는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가 모두 존재한다. 굴절 접사는 흔히 ㉡ 어미라고 하는데 접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파생 접사만을 가리킨다. 결국 접사는 좁은 의미로는 파생 접사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를 모두 포함한다.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지만, 굴절 접사인 어미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구경꾼’은 파생 접사 ‘-꾼’이 어근 ‘구경’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구경’과는 별개의 단어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다. 이에 비해 어간 ‘먹-’에 어미가 결합한 ‘먹지, 먹자, 먹어서’ 등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고, 기본형인 ‘먹다’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다.

특히 ㉢ 파생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6) 2018년 9월 고2 모의고사 11번~15번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귤소리'에서 접두사 '귤-'은 '쓸데없는'이라는 뜻으로, 어근인 '소리'가 나타낼 수 있는 뜻을 일부 제한할 뿐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놀이'는 동사의 어간 '놀-'을 어근으로 하여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다. 즉 접미사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귤-'과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 하고, '-이'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 한다.

11. 다음 문장에서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썽꾸러기였던 나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부모님의 드높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 ① '드높은'의 '드-'는 ㉠에 해당하는 예로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군.
- ② '말썽꾸러기'의 '-꾸러기'는 ㉠에 해당하는 예이며, '말썽꾸러기'는 '말썽'과 별개의 단어이겠군.
- ③ '되었다'의 '-었-'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이군.
- ④ '깊이'의 '-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⑤ '흐르고'의 '-고'는 ㉡에 해당하는 예이며, '흐르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었겠군.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의 친구는 행복하였다.
- ② 그녀의 머릿결이 찰랑거린다.
- ③ 나와 그녀의 견해차를 좁혔다.
- ④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높다랗다.
- ⑤ 열심히 공부한 내가 자랑스럽다.

13. 다음은 '문장의 짜임'에 대해 활동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목표	안긴문장의 특징을 이해한 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겹문장을 만들 수 있다.
내용	※ 다음의 [자료]를 안긴문장으로 활용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을 만드시오. [자료] ◦ 꽃이 봄에 활짝 피다. ◦ 봄이 오다. <조건> ◦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겹문장을 만들 것.
결과	㉠

- ①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핀다.
- ②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온다.
- ③ 나는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
- ④ 나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⑤ 나는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한다.

14. <보기>의 ㉠~㉣을 활용하여 현대의 '구개음화'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만이[마지], 같이[가치]  
 ㉡ 발이[바치], 발을[바틀]  
 ㉢ 굳히다[구치다], 단히다[다치다]  
 ㉣ 밀이[미치], 끝인사[끄딘사]  
 ㉤ 해돋이[해도지], 견디다[견디다]

- ① ㉠을 보니, 'ㄷ'이나 'ㅌ'이 끝소리일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② ㉡을 보니, 'ㅌ'이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을 보니, 'ㄷ' 뒤에서 'ㅎ'이 탈락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④ ㉣을 보니, '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 ⑤ ㉤을 보니,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15.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라졌다.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도, 반모음 'ㅇ'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그런데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ㅣ'이거나, 반모음 'ㅇ'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 가칠 므러  
 (뺨이 까치를 물어)

◦ ㉡ 기픈 남근  
 (뿌리가 깊은 나무는)

◦ ㉢ 세상에 나매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 |   |     |     |      |
|---|-----|-----|------|
|   | ㉠   | ㉡   | ㉢    |
| ① | 벼압  | 불휘ㅣ | 대장뷔ㅣ |
| ② | 벼압  | 불휘ㅣ | 대장뷔ㅣ |
| ③ | 벼야미 | 불휘  | 대장뷔  |
| ④ | 벼야미 | 불휘  | 대장뷔ㅣ |
| ⑤ | 벼야미 | 불휘ㅣ | 대장뷔  |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정 답**

2018년 3월 고1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⑤	12	①	13	①	14	⑤	15	①
2018년 3월 고2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③	12	②	13	③	14	③	15	②
2018년 6월 고1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④	12	①	13	②	14	①	15	②
2018년 6월 고2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④	12	①	13	④	14	④	15	④
2018년 9월 고1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②	12	③	13	③	14	⑤	15	③
2018년 9월 고2 모의고사 11번~15번									
11	④	12	④	13	④	14	③	15	③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